“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

■ **이종윤 원로목사**

마태복음11:29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으로 표현되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어야’ 교회가 하나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빌2:5) 그 겸손은 세상의 어떤 겸손과 달리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겸손이요, 그가 보여 주셨고 실천해 주셨던 겸손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고 모방하려는 제자들만이 이 겸손을 가질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게 되는 비결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겸손함이 있는지를 보면 알게 된다.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황이 베드로 사도의 후예라고 자칭하면서 성도의 발을 닦아주어야 할 자리에 앉아 오만과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명령과 대접이나 받고 있다면 그가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철학에서 말하는 실체가 아니요,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동일하신 존재라는 뜻이다. 제2위 신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본체시나’는 영어로 과거 시상으로 번역되었으나 헬라어에서는 미완료 분사형 즉 계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는 성육신하신 뒤에도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 소위 사신(死神)신학이 나와 한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신은 죽었다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신 것이 신화라면서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세상을 위해 목숨을 버렸노라’ 하실 때 그 목숨은 헬라어로 ‘조에’ (생명)가 아닌 ‘프쉬케’(자아)로 되어 있다. 그가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6)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 능력, 주권이 그에게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취하려 하지 않으셨다. 애를 써서 취하려고 할 만큼 소중한 것을 이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것을 취하려 하지 않으셨다. ‘자기를 비워’(7)는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심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예수께서 모든 권능과 영광을 쏟아버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에 계신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겸손의 표현인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과 주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경우 삼위일체 교리에 위배될 수 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갖고 계셨다. 그분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사색적이고 철학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그의 겸손을 흠모하고 찬양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를 영원히 가지고 계시면서 종된 사람의 형체를 덧입고 계신 것이다. 神 · 人 양성의 기독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독특한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다. 케노시스(비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포기했다는 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케 된다. 도케티시즘(가현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없고 영적으로 오셨다는 가현설은 기독교 이단이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함, 영광, 존귀함, 권능을 다 보여 주셨다면 인간들이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었을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의 권능을 감추시고 자기 능력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자기 영광을 버리셨다는 것이 ‘자기를 비어’라는 겸손의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된 것이다. 종의 형체(헬.몰페) 즉 그리스도의 지상 존재 형태가 복종과 천대와 멸시로 특징 되어진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것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되게 하고 구원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로 부각시키는 중요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의 표현이 우리 사랑과 겸손의 절대 모델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 지혜와 상상력을 초월한 것이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특징과 겸손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인간의 모양은 본체와 형체와는 달리 다소 가변적이고 일시적이며 본래적이 아닌 형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랑이었고 그 자체가 겸손의 표상이 되신 것이다. 겸손과 복종의 극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인간의 모든 겸손은 십자가에 비추어 볼 때 교만으로 나타나고, 인간의 복종은 십자가의 복종에 비하면 불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복종과 겸손의 극치를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 교회가 모시지 못함으로, 교회 연합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책임이다.

-한국장로신문 2015년 12월 19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완전한 회복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눈물겨운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하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대면하여 나누고 싶지만 강화된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오늘도 주일 낮 1,2,3부 예배와 찬양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해 드립니다. 비대면 상황이지만,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교회학교 예배와 새벽기도회도 실시간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수요2부 예배만 수요1부 예배 영상이 녹화방송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725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임목사** 조동수
전도사 박미라 안용곤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육전도사** 허은 이대원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 · 강혜정,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 · 김희정, 우상식 · 김정옥(인도), 서광종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라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또,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진 · 홍성임(팔라우), 이재율 · 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 · 박재연(마다가스카르)

제31권 제30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2021년 7월 25일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 울 교 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Tel.558-1106 / Fax.558-210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seoulchurch.or.kr/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

■ 요 15:1-5

‘포도 또는 포도나무’라는 말은 구약에서 300회, 신약에서 61회가 언급되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 과수였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건축을 위한 목재용이나 관상용 정원수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고 오직 열매만 의미가 있는 나무입니다. 이 원리는 본문에서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토질이 좋지 못하거나 물 사정이 여의치 못하거나 병충해가 생겼거나 아니면 기상이변이 등의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모든 어려움이 한꺼번에 덮친 상황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시급하게 대책을 세우고 준비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1) 제4차 산업 시대의 선교 방향 설정. 2)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적 급변에 대응하는 일 3) 전체적으로 종교인의 수가 급감하고 교세 감축이 가파르게 이어지는 등의 매우 무겁해지는 탈 종교화 시대의 징후를 극복하는 일 등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극심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은데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을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야만 하는 십자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용기와 꿈을 주는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5절).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 관계를 점검해야

인생이 어려워지고 삶이 많은 난관에 봉착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한 가지는 관계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열심이나 경험 그리고 식견 등은 충분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미흡하여 영적 성장과 결실이 어려운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열매 맺는 포도나무의 첫 번째 조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충실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지, 주님과의 연합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7절),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기도에 힘쓸 것을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그 자체만으로 아무것에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에 잘 연결되어 있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구약의 핵심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고 신약의 핵심은 ‘회개하라’입니다. 이 모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없었던 교회 역사는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마다 위험한 일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님과의 견고한 믿음의 관계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2. 정결한 삶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1절)고 하셨습니다.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나무를 가꾸고 돌보시는 분은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입니다.(2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들이 청결할 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열매 없는 병든 가지들은 제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안과 밖은 모두 청결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바 악을 행하는도다’(롬 7:18-19)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는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는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이며 둘째는 부패한 자신을 회복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해결책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입니다.(5절) 주님과 우리의 신비로운 연합만이 악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 즉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됩니다.(롬 6:6)

3. 우리가 맺어야할 열매들

주님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마 7:17)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연히 맺어야 할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는 성품과 인격의 열매이며 둘째는 사역의 결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의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모두 인간 내면의 성품과 관련된 가치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내면의 성숙을 통해 인격의 변화가 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헌신과 사역의 열매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고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교회 안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각자 보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거룩하고 향기로운 삶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그들이 사는 세상을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모든 나라에서 절대 권력을 지닌 왕정제도가 사라지고 복음의 정신에 기초한 민주정치가 구현되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을 노예화시켰던 봉건 경제제도가 사라지고 시장 경제 체제가 성립되었고 교육과 문화와 예술이 꽃 피었습니다.

내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열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열매,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열매를 함께 맺어나가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팬데믹의 위기 시대에 영적으로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시대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Ⅰ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임상헌 장로
Ⅱ	오전11시20분	조원영 목사	최광성 장로
Ⅲ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35:3-4···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47(시 105)···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맡 은 이
찬 송 Hymn ·····288(204)···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 15:1-5···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 ·····309(409)···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묵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16:1-2 ····· 인 도 자
찬 송 ····· 66(20) ····· 다 함 께
기 도 ····· 김희석 집사
성 경 ····· 수 17:14-18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네가 스스로 개척하라" ··· 설 교 자
* 찬 송 ····· 332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수요예배

Ⅰ부 오전 11시 ·인도: 전재홍 목사
Ⅱ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Ⅰ 부 ····· 이옥수 권사
성 경 ····· 수 18:1-10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회막을 세웠으며"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 손달익, 서명철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Ⅰ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Ⅱ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Ⅲ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수요Ⅰ부	호산나	구민영	안효주	홍혜란				
수요Ⅱ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알 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및 부서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부서 예배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예배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7. 603호 부서 예배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예배
세례 문답식 : 주일 오후 1시30분-3시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1. 새가족 등록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층 안내데스크에서 예배 전, 후로 새가족부에서 등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방역지침 4단계에 따른 예배 안내 (7.12.부터 지침 변경 시까지)
(1)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비대면 실시간 생중계
(2) 수요1부 예배 - 비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2부 예배 - 수요 1부 예배 녹화 방송
(3) 새벽기도회 - 비대면 실시간 중계
따라서 수요 2부 예배를 제외한 모든 비대면 실시간 중계예배는 각 해당 시간에 드리시면 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999명	497명	2,496명	527명	2,495명

자기 정당성을 포기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오직 한편 사람만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라고 했다. 이 강도야말로 골고다 산상에서 예수를 둘러선 모든 사람 중에 결정적으로 자기 정당성을 포기한 오직 한 사람이었다.

이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리스도는 무죄한 자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진리를 선포한 최초의 복음전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의 머리 위에 빛나는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그를 메시야로 고백했다. 주님은 지체함 없이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심으로 그는 성도가 되었다.

진정한 구원은 십자가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자기 정당성을 포기한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자유를 의미한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끕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